

## 요동치는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 난립

### 출마 후보군 수십명 메머드급

내년 지방 선거에서 영천 시장 후보군들은 역대 어느 때보다 그 숫자에서 메머드급이다.

현재까지 직접 출마의사를 밝힌 시장 후보군들만 10여명이 넘어서고 있다.

보수의 텃밭으로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시장과도·시의원 전부를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당선이라는 영광을 영천 유권자들은 기꺼이 제공했다. 하다못해 시의원 비례 2석마저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이러다 보니 최근의 탄핵 정국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등 정가의 판도가 요동을 쳤으나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한다. 시장 후보들의 정당 선호도는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그러나 추석 명절 이후 이러한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던 일부 후보군은 집권당으로 방향을 돌리는 징후가 보이는가 하면 새로운 후보자가 깜짝 등장 하는 등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퇴한 하기태 행정자치국장장과 오는 30일 명퇴 예정인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이변이 없는 한 자유한국당 입당이 예상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으로 더불어 민주당 행을 계획하고 있는 후보들은 거취가 명확해진 후에 진로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행을 결정한 후보군들은 드러내 놓고 의사를 표명하며 표심다지기에 골몰하고 있다.

추석 이후 자유한국당 공천을 향해 선거관에 뛰어들어 이종권 여의도미래정치 경제 연구위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황금물결 주남들〉 농림부는 여름비가 적은 반면 가을비가 늘어 전국적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대략 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영천시도 이와 비슷한 2.5% 감소를 내다보고 있다. 10월 현재 영천은 1모작 지역 신령, 화산은 이미 벼수확이 끝나는 반면 임고, 고경 등 2모작 지역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 벼수확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천 금호읍 출신인 이씨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자신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씨는 해병대 대령 예편을 부각 시키며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에 큰 기대를 가지고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는 10여명이 넘는 후보군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끝까지 가시 않는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다.

요동치는 시장 후보군들의 행보와는 달리 시민들은 지방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가는 2018년 시작과 함께 선거전이 달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기 기자

### ‘조양쌀’ 우수브랜드 쌀 3년연속 선정

#### 고품질 브랜드화 기대

지난달 29일 발표된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조양곡물(주)(대표이사 조해병)에서 생산되는 ‘조양쌀’(품종 : 히토메보레)이 2015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조양곡물(주)은 1956년 창업해 60년 이상 양곡도정과 정부양곡 구매대행, 벼 신종종개발 등으로 영천시 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매년 300ha이상 계약재배를 통해 벼 1,800톤을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선을 통해 가공된 조양쌀로 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수브랜드 쌀 선정은 경북 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지역 우수 쌀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 브랜드 쌀은 1년간 경북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사용되고 상품 포장재 등에 선정 내역 표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대도시 직판행사 등 홍보와 판촉지원을 받게 된다.

황정욱 기자

## 농업보조금 눈먼 돈... 부정수급에 온갖 수법 난무

### 4년간 220억원 부정수급 밝혀져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107개 농림부 전체 국고보조금사업 중 약 75% 79개 사업에서 총 70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금액으로는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에 강도 높은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같은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 부정신청이 무려 80.4%에 이르고 사업비 부풀리기, 서류조작, 타용도사용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이다. 이중 농

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 3100억 원으로 10%를 웃돌고 있다. 국가 총예산 중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최근 5년 동안 47건에 4억 1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지수 기자

### 〈사 령〉

**박 종 운**  
 본사대표이사  
 사임

(2017. 10. 10)

#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제33회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17년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모교운동장

고 문	이상우 (32회)	자문위원	전 혁 (56회)	부 회 장	이해성 (70회)
"	김준영 (42회)	"	장건환 (56회)	감 사	이원조 (62회)
"	최일광 (50회)	"	유석권 (57회)	"	이환석 (70회)
"	이덕모 (53회)	"	류치득 (57회)	사무국장	전영국 (70회)
"	성영근 (54회)	직 전 회 장	서동진 (57회)	사무차장	조완용 (71회)
"	김성호 (55회)	회 장	박종운 (58회)	재무부장	허성준 (74회)
"	이종대 (56회)	수석부회장	김종팔 (59회)	재무차장	이수경 (75회)
자문위원	이춘만 (52회)	부회장	구분수 (58회)	여성부장	오영희 (71회)
"	고진구 (52회)	"	조장형 (59회)	여성차장	김상희 (76회)
"	김경해 (52회)	"	손중섭 (60회)	기획부장	김기호 (72회)
"	조경숙 (52회)	"	조영철 (61회)	기획차장	성도현 (75회)
"	박동철 (53회)	"	김상길 (62회)	체육부장	최영철 (72회)
"	양도암 (53회)	"	김홍균 (63회)	체육차장	이창근 (76회)
"	김서규 (54회)	"	이만희 (64회)	홍보부장	조옥희 (71회)
"	우애자 (54회)	"	류준하 (65회)	홍보차장	김윤정 (77회)
"	이용우 (54회)	"	박종복 (67회)	봉사부장	손관현 (72회)
"	김태철 (55회)	"	김환섭 (68회)	봉사차장	박상호 (77회)
"	하준식 (55회)	"	안덕수 (69회)		

### 기별회장 및 총무

57기 회장 조동주	총무 이성국
58기 회장 박중한	총무 황효기
59기 회장 박창오	총무 황보선옥
60기 회장 임대역	총무 김천중
61기 회장 황대갑	총무 인미주
62기 회장 김상길	총무 이원조
63기 회장 석병일	총무 이재문
64기 회장 박말진	총무 이호준
65기 회장 서기수	총무 조 현
67기 회장 손재영	총무 박규만
68기 회장 김대림	총무 김순임
69기 회장 오태준	총무 김지훈
70기 회장 조영래	총무 김순복
71기 회장 김정훈	총무 이명식

72기 회장 이대희	총무 최병규
73기 회장 이창열	총무 박은주
74기 회장 김성동	총무 손효진
75기 회장 김은영	총무 김현정
76기 회장 박병무	총무 이창근
77기 회장 이동주	총무 김윤정
78기 회장 신동길	총무 이대휘
79기 회장 김동용	총무 문은실
80기 회장 김종표	총무 이영미

### 연락처

회 장 박종운 010-5529-5535  
 수석부회장 김종팔 010-2501-6410  
 사무국장 전영국 010-4530-7620  
 사무차장 조완용 010-3037-5252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 '별의별축제' 민낯, 관리부재? ◀▶ 시민의식 실종?

## 축제 뒤처리 나몰라, 쓰레기 풍성한 추석, 시민들 인상 찌푸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간 지역 4개 축제를 통합해 하나로 묶은 영천시 통합 '별의별축제'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하지만 축제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해 강변공원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일 오후 망정동의 시민 A씨는 전화로 "축제가 끝난지 사흘이 지났는데

뒤정리가 되지 않아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철제파이프가 길가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산책 나온 시민들의 사고까지 우려된다."면서 대책을 호소해 와 본지가 긴급 현장취재에 나섰다. 특히 이 시민은 "이 같은 축제뒤처리를 외부 관광객이 본다면 영천이미지도 깎아 내리게 된다."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후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영동교 다리 밑에는 천막을 철거하려다 중단한 채로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다. 깨진 유리조각이 잔디밭에 수북이 쌓여있고 여기저기 천막들이 바람에 나뒹굴어 마치 폭풍을 맞은 듯 보였다.

또 일부 천막들은 철거 도중 작업을 중단했는지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 가장자리에 철제파이프가 그대로

로 방치돼 안전사고의 위험도 노출돼 있었다. 더군다나 식재료(굵은 파 등)가 쓰레기봉투에 상품 그대로 버려져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악취까지 풍겼다. 특히 천막에 사용했던 노끈 등은 바람에 나뒹굴어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A씨는 "축제가 끝난 다음날 하루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이같은 뒤처리가 아쉽다"면서 "이렇게 중단하고 오는 9월까지 긴 연휴에 들어가면 천막과 쓰레기들이 바람에 흩날려 공원 전체가 쓰레기로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겠다."며 추석연휴 중이지만 관계

공무원의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A씨는 "추석으로 뒤처리를 중도에 중단하려면 흩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묶어서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뒤처리에 대한 대인없이 긴 휴가에 들어간 공무원의 관리부재를 아쉬워했다. 또 A씨는 "이렇게 나몰라 한 업자와 시민들에게도 공중의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관리책임 공무원과 업자, 그리고 식당 등에 참여한 단체 등 시민의식 부재를 총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정리를 해야 한다는 시민의 지적에 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장지수 기자

## 김영석 시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동참

### 시청 직원 및 기관단체 적극 동참 당부



김영석 영천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성금 기탁에 동참하며 모금활동에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0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가진 10월 직원정례회때 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외면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과 뻔뻔함을 비판했다. 또 "시민 힘으로 건

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고장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동참을 권했다.

영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상임대표 정경호 목사)는 지난 8월 14일 공식적인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권·반인륜·반역사적 만행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영천댐 삼귀교 1일부터 통행제한 풀려

### 용산-삼귀 주민 불편 해소



영천댐(자양댐)을 가로질러 용산리에서 삼귀리로 들어가는 삼귀교 성능 개량공사가 마무리돼 두달여 간의 통행제한이 지난 1일부터 풀려 통행이 재개됐다.

삼귀교 공사현장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본보에 "오늘 교량간간 조립 작업이 완료되면 내일부터 통행이 재개된다. 그동안 불편을 겪어 오신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본보는 지난 달 4일 '용산리-삼귀리간 다리 다닐 수 없다. 54일간 15km 영천댐 돌아가야'라는 제하

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영천시는 '용산-삼귀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삼귀교 성능 개량공사의 상부 슬래브 보강공사 시행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4일간 삼귀교의 교통을 통제해 왔다.

이 공사로 인해 자양면사무소 주변과 용산리, 충효리 주변 주민들이 삼귀리를 들어가려면 통제기간 동안 영천댐 공원(카라반 아영장)까지 약15km~20km를 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손흔익 기자

## 영천시를 빛낸 스타기업 선정

### 기업역량 우수한 (주)금창



회공헌활동 등 지역친화적인 기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금창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1991년 설립한 이래 26여년 동안 영천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했다. 현대, 기아 자동차 OEM업체로 품질혁신, 종합경영혁신 활동과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올해의 협력사', 2017년에는 경북 TP 100대 프라이드기업 선정 되는 등 국내 차체업체의 선도기업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간 684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분야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영천시를 빛낸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7년도 3/4분기 영천시 스타기업'에 (주)금창(대표 송재열)이 선정됐다.

지난 1개월 동안 시행된 선정심사에서 서류 및 방문현장실사를 거친 후 매출신장, 고용창출, 사회적 활동 등 종합적 평가에서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복지후생, 인구늘리기, 사회후원, 장학사업 참여와 같은 기업의 사

(주)금창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꾸준한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특허 51건, 특히 트럭크 힌지 분야 신기술 인증 획득, 경북PRIDE상품 지정,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 및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되는 등 기술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적극적인 경영으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에 해외영업망을 구축해 매출을 창출하는 등 탄탄한 기업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원이 만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기업'이라는 목표 하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원 동아리활동 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사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개선 통한 착한 경영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울러 영천시 미래가 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 8천 5백만원 기탁,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9백만원 기탁, 지역주민 독거노인대상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용기 기자

## 영천시 간판개선사업 순조롭게 추진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개선 전



개선 후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간판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영천시는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한 결과, 완산동 말죽거리, 금호읍 금호로, 서문 육거리 일대 등이 선정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근거해 건축물 및 점포 여건에 맞춰 간판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옥외광고센터 및 경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디자인 자문을 활용해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간판경비로 영천시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이 기대되며,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는 2011년과 2015년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일대, 2016년 금호읍 교대리 일대(1차)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사업 예산을 확보해 야사동 지구로 간판개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욱 기자

## 추석연휴 기간 중 효율적 교통관리 유공 직원에 표창

### 영천경찰서

영천경찰서(소장 심덕보)는 11일 오전 영천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축제와 추석기간 중 효율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교통지체 최소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직원 7명에 업무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 수상자는 교통관리계장 이종기 경위를 포함해 경위 이병우, 경위 허대건, 경위 권순



대, 경위 신춘식, 경위 고재식, 경위 조재화 등 7명이다.

이들은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기간(9.29.~10.9.)중 영천 별의별

축제 행사장, 영천공설시장 일원, 국립영천호국원 일대 등에서 효율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교통지체 최소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공로다.

심덕보 서장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현장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 구인·구직 만남의 장 잡(JOB)미팅데이 실시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송재열)와 영천시취업지원센터(센터장 윤승오)는 지난달 25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청 잡미팅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영천 관내 기업체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주) 안성택 이사 및 직원을 영천시취업지원센터로 초청해 구직자 50명의 면접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주)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영천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총 67명의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해 행사당일 50명이 면접을 거쳐 추가적으로 5명의 인원이 기업체로 방문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을 진행 한 안성택 이사는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영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 제21회 경북도 ‘노인의 날’ 기념 행사

### 경북어르신 영천시민회관에 800여명 참석

영천시는 12일 오전 영천시민회관 스타홀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경북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회장 박영일)와 영천시지회(회장 성낙균)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의장, 박영일 경북연합회장, 성낙균 영천시지회장, 도내 21개 시·군 노인회 회원 및 지역 어르신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얼굴이 상당히 밝다. 그 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는 정말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큰절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영일 연합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 이기적인 욕구 충족에 만족하지 말고 여유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희생과 능력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자”고 말했다.

김순화 시의장은 “노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고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고 전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997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2011년부터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날, 노인주간행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손훈익 기자

## 제22회 북안초총동창회 총회 개최

### 만국기 아래 또 다른 추억 쌓아



제22회 북안초등학교 총동창회 총회가 지난 9일 북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한혜련·김수용 도의원, 이춘우·전종천 시의원, 정재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기태 전 행정자치국장, 박중운 전 시의원, 김일홍 북안농협조합장, 이병성 북안면장, 북안초 동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최태식 전 회장과 이우천 전 회장에게는 동창회 발

전과 빠짐없이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동문들의 화합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모교 재학생들에게는 학용품들을 전달했다.

정용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학창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어린시절 뛰어 놀았던 운동장에서 선 후배 동기간 다시한번 뜨거운 정을 나누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석 시장은 축사에서 “북안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선 시장까지 할 수 있었다”며 “북안면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4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북안면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들은 이만우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입 회장은 수입 인사를 통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식 이후 동문들은 만국기가 펄럭거리는 운동장에서 노래자랑과 율놀이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용기 기자

## 영천 SNS서포터즈, ‘별의별축제’ 홍보 역할 특출

### 축제모습 전국에 실시간 홍보

지난 6월 첫 창단된 영천시 SNS서포터즈단이 이번 ‘별의별 축제’ 현장에서 생생한 축제모습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 홍보단의 역할이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홍보단은 축제장에 지정 부스를 마련하고 첫날부터 공식 페이스북인 ‘별의별 영천’을 통해서 영천의 소식과 이번 축제를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전국에 알리는 축제의 주인역할을 다했다.

축제 현장인 SNS서포터즈단 부스에는 다소 인터넷 속도가 느려 애로를 겪었지만 ‘휴대폰 무료충전’, ‘인터넷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영천 시페이스북 가입안내’, ‘영천시관광 안내책자배부’ 등 축제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2017 영천 별의별 축제 인증샷이벤트’를 실시해 ▶영천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클릭 ▶영천시 페이스북 그룹에서 ‘별의별 영천’ 가입하기 ▶영천시 페이스북에서 ‘2017 영천 별의별축제 인증샷 이벤트 응모하기’ 등 게시물에 댓글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남기기를 진행해 축제 참가자들로부터 직접 참여를 유도해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또 부스에서는 ‘영천으로 오세요, ‘영천이 좋아요’ 기념 인증샷사진을 찍어주고 페이스북 가입실명과 영천의 대표 과일인 포도를 한 송이씩 나눠주는 등 축제 기간 동안 영천 알리기 SNS단 전체가 성공적 축제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

황정욱 기자

# 취업을 향한 청년의 꿈!

## 영천상공회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안내>

#### ◇ 구인·구직매칭 정보망운영

- 구인기업·취업희망자 정보 등록 및 제공
-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구축

#### ◇ 구직 활동자 취업 지원

-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1:1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
- 동행 면접 및 구직서류 작성
- 지역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영
-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 ◇ 문의사항

**영천상공회의소** 문의전화 054)335-6000  
 홈페이지 www.ycci.co.kr  
 경상북도 영천시 금원로 63(3층 사무국)

# 자유한국당 신인 정치등용문, 정치대학원 19기 회장에 선출



## 김상현 영천장례식장 대표

회관에서 실시된 자유한국당(당대표, 홍준표) 정치인재 등용문인 당 정치대학원 19기(244명) 원우(정치대학원 학우회)모임에서 투표로 당당하게 회장에 선출됐다.

당 정치대학원 19기는 정치지방생 및 공직선거 출마 희망 대상자들이 지난달 5일 입학해 오는 11월 2일까지 10주간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매 2시간 가량 정치수업을 받는 정치학원이다. 또 이 자리는 전국 유명 정치인들과도 교분을 갖는 사전 정치경험을 쌓는 곳이기도 하다.

김 대표가 소속해 있는 이번 대학원에는 당초 350여명이 신청했으나 모두 수용이 불가능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경험자들을 제외한 순수 신인 244명만으로 정치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학원 원우회장에 출마해 244명 중 장장한 후보자 7명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투표는 1,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큰 표차(2위 48

표)로 원우회장에 올랐다.

홍준표 당대표, 홍분표 사무총장, 류석춘 혁신위원장, 이종혁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박순자 의원과 전국 244명의 정치 끝나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달 5일 개원식에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에서 다선 국회의원, 광역시장 등 정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길 희망한다”며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자유한국당 전국 정치신인 원우 회장에선 출된 김상현 영천장례식장 대표는 이날 회장 수락에서 “유명 정치지방생들이 장장한데 제가 회장에 선출된 것이 사실상 과분하다. 하지만 회원 244명의 뜻을 받들고 개개인의 의미까지 하나로 모아 소통으로 제 모든 정성을 다해 당에 헌신하고 회원들의 믿거름이 되겠다”고 회장 선출 소감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 남부-완산-북안-서부 지역구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으로 있다.

손훈익 기자

김상현 영천장례식장 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치신인 등용문인 정치대학원 원우회장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 신인으로 정식 데뷔했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10년(2007. 4)이 지난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책임당원이 되면서 정치 보폭을 넓혀오다 이번 원우회장에 선출되면서 본격 정치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

# ‘청렴! 도전 골든벨’서 김두한(보건위생과) 1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위해 개최



영천시는 지난달 27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청렴한 영천’, “청렴의 종아 울려 퍼져라”는 주제로 공무원의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날 골든벨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시의장, 조남월 부시장

을 비롯해 영천시 각 부서(읍면동, 사업소 포함)에서 선발된 100명의 참가자와 120여명의 응원단 등 모두 220여명이 참석해 준비된 실력을 겨루었다. 시 관계자는 “오늘 골든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원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골든벨은 100명 중 4번의 패자부활전을 거쳐 마지막 50번째 문제까지 장장 2시간여 소비 끝에 최종 1인이 선발됐다. 1위는 보건위생과(김두한), 2위는 상수도사업소(이은기), 3위 중앙동(이명숙), 4위 대장면(박준서), 5위 화북면(허선희)이 각각 순위의 영광을 안았다.

1위를 차지한 김두한 주무관은 “기분이 너무 좋다. 보건위생과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최종 승자의 소감을 피력했다.

손훈익 기자

# “農心은 安心! 지역 내 주택화재 제로화 추진” 지역농축협조합장,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우동교)은 추석명절을 맞아 호국원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특별기획전’을 충령당 제2관에서 지난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지난 11일 농협은행 영천시지부 2층회의실에서 농협 영천시지부와 축협조합 등 지역농축협 조합장 8명과 함께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법령과 취지, ▲지역 내 주택화재 발생 현황 및 저감대책 논의, ▲주택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조합원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무 영천소방서장은 “농심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인해 주택 화재 제로화에 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정욱 기자


# 우리민족 독립운동사, 이제 만화로 어린이 위한 독립운동사 특별기획전

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은 대한민국의 독립과정을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한국광복군의 활약상으로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애

니메이션 형태의 패널로 전시해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이다. 우동교 원장은 “추석연휴기간 호국원을 찾는 많은 참배객들이 일제 치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회 의미를 짚었다.

손훈익 기자

## 인터뷰



지난달 30일부터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한 하기에 전 영천시 행정자치국장이 퇴임소감을 밝혔다. 하 전 국장은 퇴임 후 영천 역사문화연구원장에 취임했다.

- 1. 퇴임소감은?**  
○ 정년을 2년 3개월 남기고 명예퇴임한다. 인생의 2/3가 넘는 37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떠난다는 사실이 아쉽고 있지만 후배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 주게 돼 나름 위안으로 삼는다.
- 2.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 2011년 기획감사담당관 재임 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가용예산 재원으로 편성하던 관행을 탈피,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 영천시의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첫 단추를 켜고 최초로 시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어 도약의 기쁨을 마련한 일이다.
- 3. 공직생활 중 너만의 철학이 있었다면?**  
○ 강하고 실력있는 공직자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 강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 4. 가족들께 하고 싶은 말?**  
○ 아내와 아들, 딸 모두가 공직자인 집안이다. 말없이 내조해 준 아내(김점숙, 북안면 주민담당)와 성자익에 있는 하지 못했지만 잘 자라준 딸(은혜, 경북도청 법무담당관실)과 아들(정현, 영천경찰서)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 5. 후배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  
○ 영천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보다 큰 생각을 가지고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량의 확장성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멋진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 6. 영천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  
○ 많이 부족함에도 37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7. 퇴임 후의 계획?**  
○ 민선 초기부터 퇴임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장들의 명암을 지켜보았다. 영천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한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천시장으로 출마한다. 우리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 무한 봉사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겠다.

# 민선 3기 이영우 도교육감 5대 분야 50개 공약사업 점검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달 26일 도교육청 본관 501호 회의실에서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단은 민선3기 교육감 공약 5대분야 50개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교육감 공약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 공약 총 50

개 사업 중 46개가 완료됐으며 이행률은 최종 목표 대비 96.5%로 확인됐다. 미완료된 4개의 공약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말까지 이행완료 될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학부모·일반인·교직원 등 22명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감 공약이행상황을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도민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견인한다. 황정욱 기자



# 영천최초 4개 축제 묶은 통합 '별의별축제' 폐막

## “추석연휴 겹친 축제, 즐거움과 행복 담았다”



영천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영천한약·과일 축제 및 문화예술제와 보현산별빛축제 4개를 통합해 지난달 29일 금호강변 특설무대에서 '2017 영천 별의별축제'로 합동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행사를 하나로 묶어 천, 지, 인 컨셉으로 개막일 저녁 6시에 금호강변 특설무대에서 '축제로 하나된 영천,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광과례를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순화 의장 등 많은 내·외빈을 포함해 김종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개막식 덕담코너에서 “저는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

다.”며 “이번 축제자리에서 큰 복을 담아 가시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에 앞서 큰절을 하면서 “한가위만큼이나 풍성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순화 의장은 “4일간 열리는 축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가득 담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순화 의장은 지역 열여섯명의 어르신을 대표해 화남면 서태선(94세) 어르신께 보약을 증정했고, 김영석 영천시장은 윤인지 축구협회장에게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여했다. 이어 5개 부문에 대한 과일품평회 시상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번 영천시 통합 '별의별축제' (9월 29일~10월 2일) 4일 동안 강변공원 일대에서 한약과 과일 및 문화축제가 특설무대 주변에서 왕평가요제,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등 각종 전시와 문화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황정욱 기자

## 제22회 왕평가요제 대상 '살다보면' 부른 박정길씨 가수증과 함께 700만원 부상



제22회 왕평가요제 대상은 인기가수 권진원의 '살다보면'을 부른 박정길(구미. 33)씨가 차지했다. 가수증과 함께 700만원의 상금도 거머쥐었다. 9명의 본선진출자중 4번째로 나선 박정길씨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목소리와 심정을 담은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왕평가요제 본선진출자 9명 모두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변변찮은 가수보다 나은 실력들을 가졌다는 후문도 흘러나와 왕평가요제 전국적인 가요제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전중 심사위원장은 “이번 본선 진출자는 25대 1의 경쟁을 뚫고 본선무대에 올라왔다. 자신만의 감성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다.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가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명 모두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잘 불려서 심사위원들이 고민에 빠졌다”며 심사평을 남겼다.

금상은 8번째로 나와 '사랑했어요'를 부른 지윤호(대구. 31)씨가 수상했고 은상은 왕평가요제에만 7번 도전한 박재화(부산. 28)씨가 '골목길'을 불러 럭키세븐의 행운을 맞았다. 첫 번째 나와 'The winner taker it all'을 부른 이지영(안양. 41)씨는 동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장려상과 인기상은 박형구(서울. 33)씨와 박준호(울산. 23)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가요제 심사위원은 김전중, 김병길(작사·작곡가), 김진룡(작곡가), 김인철(작곡가), 신재동(작곡가), 권혁식(작사·작곡가), 김병기(작곡가)씨가 담당했다. 이날 가요제에는 이만희 국회의원, 김영석 시장, 김강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순화 시의장, 최문섭 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 기관장을 비롯, 시민 1만여 명이 찾아와 가요제의 인기를 실감했다. 초대가수로는 박상민, 더원, 설화수, 지혜, 왈와리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열정을 쏟아냈다. 가요제의 사회는 대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를 진행하고 있는 유강국과 조영주mc가 맡아 재미있는 조크와 양념으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갔다.

왕평가요제는 영천시 성내동에서 태어난 왕평 이응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6년 김전중 영천시연예협회장을 주축으로 출발했다. 이제는 전국적인 가요제로 성장해 매년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왕평가요제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가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기 기자

## 보현산별빛축제, 시내권 축제에 가려 관광객 들쭉날쭉

### 주변 관계자, “좋은 프로그램 편성이나 관광객 줄었다” 아쉬움

4일간 열린 영천시 통합축제(별의별축제=한약·과일·문화제·보현산별빛축제 4개)중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축제는 두말할 것 없이 보현산별빛축제다. 하지만 이번 통합축제로 관광객이 들쭉날쭉 하는가하면 축제 3일째인 1일 오후부터 예년에 비해 또다시 인파가 크게 줄어 아쉬움을 남겼다.

보현산 별빛축제장에 관광객이 들쭉날쭉 하면서 인파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석 연휴가 겹친데다 시내권 통합축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날씨가 비가 오는 등 통합축제장으로 인한 관광객 줄림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 보현산 별빛축제장은 대부분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루었다. 축제 3일째인 지난 1일은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곳 별빛축제장은 흐린 날씨와 시내권 통합축제 등의 악재로 찾는 관광객의 수가 예년의 절반가량 이상으로 툭 떨어져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



었다. 별빛축제 3일째 인기 프로그램은 천문전시체험관, 주제관, 맨스공연, 각테일 쇼, 물고기 잡기 체험, 강풍열차 체험, 8개 관문의 천문과학 스토리텔링 체험, 버스킹 공연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장에서는 5살 정해

린양(대구 동구 율하동)이 '아빠 힘내세요'를 열창해 관광객들의 박수를 받았고 이를 지켜보던 김영석 시장은 정양에게 용돈을 주고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손훈익 기자

영천시민들의 손으로 만드는

# 영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함께해주세요!

모금 계좌  
504-10-294523-5 (대구은행)  
301-0217-6339-11 (농협)

시민들의 심혈안으로 마을과 정성을 모으는 모금운동에 영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문의 : 010-3627-0777  
시간: 누구나 참여하셔도 후원행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여와 교육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영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영남대영천병원, 20년만에 대학병원급 로비로 혁신

##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위한 힐링공간 직원들은 자긍심과 근무만족도 향상 기대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병원장 박종원)이 마침내 병원공간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다. 단순한 치료의 공간으로만 머물던 병원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위한 힐링 공간으로 제공된 것이다.

영천병원은 20년동안 병원로비에 마련된 원무과 접수창구를 없애고 차나 음료를 즐길 수 있고 방문안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했다. 기존에 있던 원무과는 올해 초 내원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래진료공간을 각종에 마련된 진료과 현장에 각각 배치돼 원무업무와 수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병원과 의료진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중심과 지역민

을 위한 문화개선을 위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에는 대학병원의 로고를 설정해 대학병원다운 로비로 꾸며져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보게 됐다.

새롭게 구성된 공간은 파스텔톤의 쿠션의자 60개와 아담한 탁자, 여러 명이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긴의자 등이 배치돼 있다. 어두컴컴한 로비의 조명이 인테리어를 통해 LED 매입등 230여개를 설치했다. 온화한 분위기의 조명으로 독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냉난방 장치와 로비 정문 상단에는 에어커튼을 배치해 각종 미세먼지 제거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건물로서는 지역 최초로

회전문을 설치했다. 회전문에는 자동센서가 있어 사람이 없으면 정지하고 다가서면 움직이도록 했고 회전속도도 고령층이나 환자들을 위해 저속하도록 했다. 병원 중간에 큼직하게 설계됐던 기둥도 나무그릴로 가려 한층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고령층이나 중증환자들의 대기시간에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 작은 소파도 준비했다. 앞으로 병원측면 벽에는 병원 역사기록물을 게시하고 갤러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원 원장은 "직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직장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제 이 장소가 가족들이 함께 커피도 즐기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공간으로 이용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 로비 오픈기념, 사랑의 음악회 개최

영천병원은 환자중심의 로비 오픈 기념으로 12일 새로 마련한 로비에서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박종원 원장과 허의행 영천야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YMCA어린이합창단, 의료진, 시민 등이 참석했다.

박종원 원장은 "새로 마련한 공간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작은음악회를 열게 됐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고 허의행 관장은 "병원 리모델링에다 환자와 시민을 위해 로비를 이렇게 깨끗하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어린이합창단은 멋진 화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고 영대병원으로부터 사랑의 기금을 해택받은 청소년들은 바이올린과 우쿨렐레 공연으로 가을밤의 추억을 수놓았다.

이용기 기자



## 영천시리틀야구단, 생체동호인대회 결승 임박



지난해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영천시리틀야구단(단장 이춘우 감독 조원진)이 2017 생활체육동호인야구대회에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는 승전보가 날아왔다.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한달간 포항야구장 등 3개 구장에서 펼쳐진 토너먼트에서

구미와 고령을 꺾고 경산과의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원진 감독은 "영천시의 지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다른 팀보다 인원도 적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팀원 모두가 하나돼 2승을 더두었다"며 영천시와 학부모에게 공을 돌렸다.

2009년 창단한 영천시리틀야구단은 지난해 1월 제6회 경주시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올해 경북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8강 진출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독과 학부모,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기 기자

## 별빛영화관, '남한산성' 으로 드디어 첫 개봉



영천시는 12일 영천공설시장 2층에 위치한 별빛영화관에서 조남월 부시장, 김순화 시장의, 한혜련·김수용 도의원, 유병수 교육장을 비롯한 내빈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빛영화관 개관식을 갖고 첫 유료 상영에 들어갔다.

별빛영화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성수기는 매일 6회~7회, 비수기는 매일 5회~6회 상

영한다. 영화관 관계자는 "관람객이 1명만 있어도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동시에 매일 4편~5편 상영하며, 5,000원의 저렴한 관람료(대도시 지역의 70% 수준)와 편리한 예매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손훈익 기자



# 경 축

## 제1회 영천시게이트볼 협회장배 대회

◆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신녕분회 게이트볼구장

##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위한 바자회

★일시: 2017년 10월 14일(토) 오전 10:30

★장소: 문화교회

취/금/품/목  
식사료, 강경젓갈, 미역, 다시마, 멸치, 신발, 의류, 과일

주관: 영천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위원회

# 희망+100 영천교육 탐방

## 영천교육지원청

지난 5월 소년체전 역대최고의 실적과 육상 1,500m 대한민국 신기록에 이어 교육지원청 평가 종합1위에 빛나는 영천교육지원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미소운동으로 2017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고 있다. 총절의 고장 영천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비전을 착실히 펼치고 계시는 유병수 교육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기자: 안녕하세요? 유병수 교육장님,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영천교육가족과 희망+100 영천교육을 슬로건으로 힘찬 출발을 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과 지역민의 지원에 힘입어 얻은 성과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미소와 함께한 지난 일 년의 시간이 저에게도 영천인의 자긍심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역에 잘 갖추어진 풍부한 교육적 자원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든든한 지원에 늘 감사하며 지낸 시간 행복했습니다.

어 학생들의 바른 심성과 꿈을 키워 나가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영천교육지원청 직원들도 '작은 나눔을 통한 큰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워더스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 달 금강 산성 산책로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4월 달 영천 나자렛 집 청소 및 환경 정비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배려의 봉사를 실천하며 투명하고 정렬한 모습으로 진절하고 신뢰받는 영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역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 중심 자유학기제 운영, 1인 1악기 교육, 1학생 1스포츠 생활화로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진로담당 교사를 활용하여 진로, 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지도로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활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부터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기자: 영천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영천영어타운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 교육,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활성화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지역 및 인근 대학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 기르기입니다. 인공지능과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있을 때 책임의식도 길러지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영천육상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기자: 영천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영어타운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언어적 자신감을 갖추게 하고자 대구경북영어마을과 영어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영어타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천영어타운의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대구경북영어마을과의 MOU를 통해 대구경북영어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며 영어체험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으며, 영어타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여 여건 개선과 프로그램 보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영천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천교육의 성과를 강조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면요?**

- 네, 영천교육은 학생이 존중받고 꿈 키우는 행복교실, 인재육성을 위한 모두가 하나 되는 교단, 학부모가 만족·동행하는 공감 학교, 모두가 신뢰하는 클린 교육 문화의 네 가지 교육 방향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는 도내 민원만족도 평가 1위, 성과관리 부서평가 평가 종합 1위,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부모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더욱더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기자



**기자: 교육장님이 강조하시는 희망+100 영천교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학생활동중심수업으로 학생들의 꿈이 자라고, 자녀의 밝은 모습에 학부모님의 즐거움이 커지고, 배움이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보람이 가득한 모두에게 희망인 영천교육을 말합니다.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영천교육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역 기관과 연계한 인성 교육, 호국 시설을 활용한 나라 사랑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미소 운동 등 영천 3선현의 전통을 이

으며 학교별 경제적 지원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 신장과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중심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를 참고해 대상학교를 심의 추천하고 있으며 학교별 추진 결과를 보고서 통해 검증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를 선정해 리코더를 통한 음악적 재능 펼치기, 모두가 한마음으로 펼치는 화음을 통한 합창의 큰 울림 만들기 등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먼저 전국소년체전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 선수단은 충청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 유도, 태권도, 탁구, 복싱, 수영 6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북 예전에서 개최된 2017교육감배 구간마라톤에 참가한 관내 초·중·고·대학대표 선수단은 초등학교부 1위, 중학교부 1위의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1500M(중학생) 한국

새로운 경북의 출발은 금호에서!!

# 제18회 금호읍민 체육대회

경북 (left)      경북 (right)

▲ 일시 : 2017년 10월 21일(토) 오전 10시

▲ 장소 : 금호공설운동장(금창교 서편)

▲ 주최 : 금호읍 체육회

▲ 후원 : 금호읍사무소, 이장협의회,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회임원**

역대회장 지경신, 이광언, 박규상, 조용필, 이창식, 윤기수, 김기주, 김호기  
 김무현, 김광덕, 박동일, 정현식, 김홍국, 이재섭, 한혁동

대회장 김무수      명예대회장 정병진  
 직전회장 백영상      수석부회장 전영도  
 부회장 전정석, 남병기, 이희철, 김병하  
 감사 조형근, 김일호  
 상임이사 장도식, 박타곤, 이정화, 전치영, 김재덕, 허정규, 임경영, 탁인규, 윤주건, 정천익, 석광호, 김창섭, 김희대  
 당연직상임이사 서기태  
 사무국장 이형주      사무차장 권영운, 한용춘

대회장 (금호읍 체육회장) **김 무 수**      명예대회장 (금호읍장) **정 병 진**

# 10월부터 지역 보육교사 보조인력 배치

## 여성 사회활동참여 확대 '아이행복도우미'



이날 발대식에서는 도우미사업 설명과 함께 근무수칙, 근무요령, 유의사항 등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했다.

영천시는 지난달 27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아이행복도우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아이행복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채용된 인력은 어린이집 45개소에 최종 49명을 배치해 10월부터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훈익 기자

#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2018년부터 영천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된다. 또 추후 예산 증액여부에 따라 중학생 무상급식 까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지난달 26일 조남월 부시장(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업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14개 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 방과후학교 및 고교 학력신장사업, 예체능 영재육성사업, 영천영어타운 운영 등 사업의 목적 및 효과성, 수혜대상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원금이 결정됐다.

시는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천시 지역 초등학교 전원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남월 부시장은 "영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200여원이 조기달성 됐다."며 "우리시도 다양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열정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손훈익 기자

# 멋진 풍광을 찾아 떠나는 가을 역사기행

## 2017 임고가족 내고장 문화탐방 실시



임고초등학교(교장 이강수)는 지난달 30일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장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본교졸업 선배인 이종문 교수(계명대 사범대학 한문교육학과)의 재능기부로 5년간 이어져 온 임고초등학교의 특색교육 사업이다.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총 33명이 참여해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임고서원을 먼저 찾았다. 포은 유물관, 선죽교, 조웅대 등을 보며 미처 알지 못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양 하절묘역에서 백암공 정의번의 조시종과 충노 역수의 묘에 얽힌 나라를 구한 의병이야기, 죽장 입암서원에서는 현재는 죽장이 포함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영천 소속으로 영천의 노계 박인로선생이 입암 29수와 입암별곡을 지은 뜻깊은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북수목원은 650m의 고산지대 식물원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생태 식물원이기도 하다. 해설사로부터 나무들과 관련된 전설, 효능, 인간에게 주는 지혜 등을 통해 나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용기 기자

# 다음 세대 키우는 학교와 가정의 역할

## 영천교육지원청, 학부모 코칭 연수 실시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12일 관내 유·초·중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스마트 미디어 절제 능력을 키우는 학부모 코칭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 강사 권장희 소장은 "미디어 사용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가능한 미디어는 늦은 나이에 접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접한다면 가능한 적은 시간 접하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수 교육장은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전과 건강에 걱정이 많다면서 스마트폰 절제 능력을 키우는 연수 참가자들이 모두 스마트 절제능력을 키우는데 앞장서 우리 학생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아



이를 구하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손훈익 기자

# 부모님과 함께 한 즐거운 가을 운동회

## 단포초등

단포초등학교(교장 김재섭)는 지난달 26일 김재섭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110명, 유치원생 18명,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운동장에서 2017년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3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학년별로 준비한 공연과 저학년/고학년 달리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지구를 굴러라.우리는 런닝맨,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한마음 배구 등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가을운동회의 아름다움을 교정에서 나누었다. 손훈익 기자



# 초등생 진로개척 위한 '꿈 찾기 진로캠프' 지속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달 26일 영화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문 직업인의 특강과 특수분장, 가상체험, 웹툰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참여 프로그램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

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목적이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속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훈익 기자

한우명가 경성관에서 함께 일할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한우전문점 "경성관"**

◎모집부문: 주방보조, 홀씨빙  
 ◎4대보험, 급여는 면담 후!(출퇴근 시켜드립니다.)  
 ★매월 4일 휴무(첫째, 셋째 월요일 정기휴일)★  
 ☎연락처: 054-336-0772 / 010-6565-6673  
 ※궁금한 사항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특별강연회 개최 평화통일 이루는 밑알 돼 주길

영천시는 지난달 26일 영천교육문화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평화공간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에서 주관했다. 강연에 앞서 경북부의장(이상천, 포항시) 취임식과 경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권경옥, 포항시), 청년위원장(추종철, 문경시), 포럼연구위원장(최철영 대구대 법학대학교 교수)의 임명장 전수식에 이어 통일담 정착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김영석 시장은 환영사에서 "북핵문제로 한반도가 아슬아슬한 실업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회원 1,100여명께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국민의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밑알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흔익 기자

### 경피용 BCG백신 무료 임시에방접종

#### 영천보건소

영천시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BCG 경피접종을 대해 무료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예방접종은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59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6일 이후 영천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영천연합소아청소년과에서 BCG 경피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영천시 보건소는 다음달 1일까지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피내용 BCG를 접종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피용 BCG도 접종 가능하다.

영아 보호자는 접종 전 영천시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cdc.go.kr>)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확인,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손흔익 기자

### 제26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 "영천시청 태권도단, 남녀일반부 메달 우수수"

영천시청태권도단(감독 명재진)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6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남녀일반부 모두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영천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회 6일차 남자부에서 이호형(-63kg급) 선수가 결승에서 박한술(김포시청) 선수를 7대5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웅재(-68kg급) 선수는 국군체육부대의 이용원 선수를

만나 6대 8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성원 선수는 -87kg급에서 3위를 차지했다.

대회 7일차 여자부에서도 금빛소식이 들려왔는데 -62kg급 김아름 선수는 결승에서 서지은(한국가스공사) 선수를 15대9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 -49kg급에서는 조혜진 선수가 김제시청의 정혜진 선수를 만나 3대9로 은메달을, +73kg급에서는 송미성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황정욱 기자

###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19일부터 매입 매입가격 내년 1월 중 확정



영천시는 2017년산 쌀 공공비축미 107,915포(포/40kg, 산물벼 17,000포, 건조벼 90,915포)를 오는 19일부터 매입한다.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건조벼는 윤광벼, 삼광벼 2개 품종이며 산물벼는 삼광벼 1개 품종만 매입한다.

손흔익 기자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되며 우선지급금은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추후 가격결정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수확기 농업인 자금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영천시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매입물량을 11월 중 확보해 시장격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188,000원/80kg)에 도달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실시한다. 또 수매농가 편의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PP포대 전량(40kg포대 12만장, 톤백 포장재 6천5백장) 지원(1억3천만원)과 산물벼 건조비(5천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흔익 기자

### 쌀요리 체험 교실로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



영천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달 간 우리쌀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 '차세대 대상 쌀요리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주먹밥 만들기'와 '떡볶이 만들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체험장은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고 우리음식연구회(회장 이명옥)가 주관해 우리 쌀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직접 만들어 보기 실습이다.

이명옥 회장은 "관내 아동들에게 다양한 쌀 요리 체험도 좋지만 벼의 생육시기에 맞춰 농업 현장의 체험과 맞물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지역 유관시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손흔익 기자

###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별의별 축제와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영천시는 시민은 물론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가관리, 서민생활 안정, 재난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운영했다.

민생 분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생활민원대책 외 10개 분야 등 총 520여명의 공무원이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영천시는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자연재해도 대비했다.

또 불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중점관리대상인 25개 품목 수급상

황을 집중 관리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창구 즉결 민원처리반 운영 및 상수도·쓰레기, 전기·가스·주유소 등 생활민원 처리제를 확립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 비상진료 및 당번 약국을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손흔익 기자

### 환경관련 종사자 축제 안전교육

영천시는 지난달 27일 그린환경센터 2층 회의실에서 환경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의별 축제' 성공다짐을 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의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별의별 축제 및 명절을 맞이해 임무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치다.

설동석 자원순환과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별의별 축제 및 추석명절을 맞이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흔익 기자

### 중국 양씨싱잉불 활동 지역에서 호평



2017 별의별축제 개막행사에 초청된 중국 양씨싱잉불(대표 양유화) 공연단이 지역방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개막식 첫 공연에서 싱잉불 공연을 선보여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싱잉불공연단은 몇몇 문화단체와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요양병

원을 방문해 싱잉불 치료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7개의 곡으로 만들어진 싱잉불은 예부터 중국인들이 선호한 기치료의 일종으로 현대인의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용기 기자



## 재)영천시장학회, 내년도 장학사업안 심의·의결

### 2017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는 지난달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학회 이·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장학회 전반 운영보고와 함께 내년도 장학사업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도 장학사업은 성적우수, 글로벌 특기적성, 복지나눔, 교육지원, 관내 대학지원 등의 5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15개분야 4억7천만원의 장학사업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확정했

다.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내 대학의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신설, 관내대학 진학자 및 외부전입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특기적성 장학사업인 해외 어학연수사업을 초·중학생은 40명에서 50명으로 고등학생은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시행해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경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셋째자녀 학비지원시행에 따라 영천시장학회도 다자녀세대 장학사업의 범위를 중·고등학교로 확

대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석 이사장은 “장학회는 나의 분신이며 시민들의 정성으로 날로 탄탄해지고 있는 소중한 기금인 만큼 시민들에게 적합한 장학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향토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금 조성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영천시 장학회는 지난해 말 4년이나 앞당긴 장학기금 200억 조기달성이라는 큰 과업을 달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장학기금 300억 조성과 명품교육도시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도약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 고향에서 ‘할배할매 섬김의 날’ 행사 가져



### 재대구영천향우회

재대구영천향우회(회장 조동희) 주관으로 1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시의장, 서울·대구·구미·경주 향우회원 및 지역 어르신 등 3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할배할매 섬김의 날’ 효 공연 행사가 열렸다.

오전 11시 경북도 노인의날 기념식에 이어 재대구영천향우회가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오전 12시부터 식사, 식전공연, 축하,

공연 및 경품추천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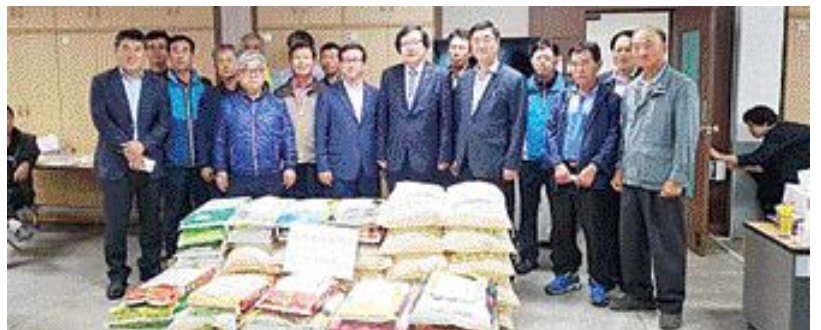
김영석 영천시장은 축사에서 “더 많은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동희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 김순화 의장은 “할배할매 섬김의 날 화합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손은익 기자

## 다산한의원,孝 실천 사랑의 현장 속으로!!

### 고경면 경로당에 쌀45포 기증



다산한의원(원장 한성협)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지역사회의 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한 쌀은 지난달 15일 영천시 완산동에서 개원식 날 개원선물로 받은 쌀로 중추절을 맞아 쌀 45포(20kg)를 관내 45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기증한 쌀은 고경면(면장 장해규) 직원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배부했다.

한성협 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르신

들을 공경하는 기부 문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해규 면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산한의원에서 나눔의 행보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고경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정욱 기자

## 잇따른 기업유치로 투자환경 입증

### (주)삼원, 580억원 투자 140명 고용

영천시가 최근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기업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삼원(대표 김세영)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원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부지면적 45,230㎡에 2025년까지 580억 원을 투자해 산업용 점·접착제, 테이프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인력 140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도 기대된다.

삼원은 1972년 설립된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친환경 첨단소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삼원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점착제는 라벨, 스티커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동차·조선부품 관련 고기능성 제품, 전기·전자·IT 산업 관련 Mobile, Display 등에 적용되는 첨단 산업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용기 기자

사설

# 축제 이대로 계속할 이유 없다

## 10년 동안 매년 축제이름하나 갖고도 이랬다저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천시 축제 4일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특히 올해는 과일·한약·문화·별빛축제 등을 통합해 '별의별 축제'라는 이름으로 추석 덕 밑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자화자찬이 고작이다. 올해로 벌써 15년째로 매년 반복되는 행사다. 이제는 뭔가 자리 잡은 행사라는 이름표를 달 때도 됐지만 여전히 축제를 위한 축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축제 후면 항상 "축제 이대로 안 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10년째 이어져 온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많은 시민들은 "차라리 이제 축제를 버려라"는 질타까지 서슴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축제는 좋은 면 보다 지적사항이 너무 넘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를 위한 명분도 사라졌다. 예년보다 불법포장마차 규모는 오히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축제로 돈벌이는 모두 각설이부대의 몫으로 평가됐다. 서로 성격이 다른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 특색을 살리지도 못했으며, 시기 선택에도 실패해 특정 공연(시민노래자랑, 왕평가요제, mbc가요베스트 등)으로 손님 쏠림현상만 낳았다. 때문에 별빛축제는 소외되어 먼 거리라는 약점과 함께 가시권 밖으로 밀려났다. 즉, 축제 본연의 집중력은 온

데간데없고 흥행과 축제를 위한 축제였다는 평가가 대체다.

이번 축제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더 살펴보면 "축제 이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먼저 영천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번 축제를 통합('별의별 축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통합축제 전체 예산은 15억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1억8천만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시민을 속였다. 또 통합축제라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까지 없었다. 불법포장마차와 노점상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훼손된 잔디 복구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질 전망이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만 발생했다. 홍보물 어디에도 축제의 주최주관 표시조차 없고, 16개 읍면동의 각 부스는 한마디로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는가 하면 축제 뒤처리조차 계산에 두지 않아 한 때 온강변을 쓰레기장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지적들은 모두 진정성 없이 축제를 위한 축제를 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축제이름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해 매년 바꾸어 특색과 집중력마저 흐렸다. 당초 한약과 과일 등 개별축제가 '한약장수축제', '영천과일한약장수축제', 또 다음해는 '영천한약과일축제'로 장수를 삭제하고 앞뒤를 서로 뒤바꾸더니 이번

는 아예 알토당토않은 '별의별 축제'로 명명해 우왕좌왕 하면서 축제의 명분마저 잃었다. 가뜰이나 지역에 핵심적 특산물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한데 한약이 우선인지 과일이 먼저인지 그것도 아니면 별이 우선인지 갈피까지 잡지 못했다.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을 보면 시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벌써 내년 축제이름까지 궁금해진다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축제 뒤 평가는 늘 대박축제로 언론에 오르내리니 공무원마저도 기이한 현상으로 느낀다.

지난 4일 스타영천 밴드(정재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선거전략용 밴드)에 지역 정 모씨는 "정말 부끄러운 축제였다"면서 <봉화 송이축제>, <풍기 인삼축제>, <상주 와인축제>등을 소개하며 "영천 축제 이대로는 전국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선 정 모씨의 지적처럼 타 지자체는 축제를 세분화 전문화로 쪼개어 특색을 살리는데 영천시는 오히려 통합축제로 거꾸로 축제 본연의 정체성까지 스스로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는 거짓과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희망한다.

★이태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 <이번! 이견우에 돼요?>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미리 내리려고 움직이려다 사고가 난 경우 버스기사(버스 회사)와 승객 사이의 과실비율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 주차 차량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경우 불법 주차 차량 소유주와 음주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먼저, 비 오는 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경우 물기로 인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에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이 버스가 움직이는 도중에 미리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니 승객이 입은 부상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승객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데 정차하기도 전에 움직였으므로 당연히 본인의 과실이 있고, 전체 손해에 대하여 50%는 자신의 과실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버스 기사(버스 회사)의 책임은 50%로 제한되게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 26531 판결 참고).

다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유로 미처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사고를 일으키고 중상을 입은 경우, 둘 다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입은 운전자는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고는 비록 불법 주차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차하여서는안되는 장소에 주차를 한 잘못은 있지만, 만약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주행하는 등으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 경우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입은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과실 90%, 불법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 10%로 각 정해져서, 서로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로 서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19265 판결 참고).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번! 이견우에 돼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746-0088, Fax053)721-8865, thyune@hanmail.net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 경북 계란 AI청정 지역 유지로 올해 첫 홍콩 수출

## 영천 한방계란유통센터, 3종 480박스(96천개) 선적



경북도는 12일 도내 영천시에 소재한 한국양계농협 영천한방계란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홍콩 수출을 위해 계란 9만6천개를 선적했다고 밝혔다. 영천 한방계란유통센터 계란 수출은 2010년 2월 처음으로 홍콩시장에 계란 4

만개를 시험 선적 한 후 2014년 2월까지 약 81만개를 수출해 왔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 중단 재개를 반복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도가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 홍콩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수출 물량은 홍콩에서 엄격한 농장심사를 거쳐 합격된 경북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농협 특란, 한방계란, 황토 먹인 계란 총 3종 480BOX(96천개)이다. 국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첫 수출이라 경북 계란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 할 좋은 기회가 되고 계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홍콩 수출은 AI청정 지역인경북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에서 철저한 AI 차단방역과 살충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기자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대01416

발행인: 박중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jy4@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날	씨	어	때
	12일	흐리고비	14°C ~ 21°C
	13일	구름조금	8°C ~ 21°C
	14일	구름조금	8°C ~ 21°C
	15일	구름조금	12°C ~ 18°C

# 제39회 영천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17년 10월 15일(일) 10:00

■ 장 소 : 모교운동장

• 고문

초대 : 김정일(6회) 2대 : 고임성수(8회) 3,5대 : 주면구(10회)  
 4대 : 고이준채(5회) 6대 : 황덕평(8회) 7대 : 권무상(11회)  
 8대 : 황태수(11회) 9대 : 손이목(13회) 10대 : 김성곤(10회)  
 11대 : 조치규(15회) 12대 : 황동욱(17회) 13대 : 손수일(21회)

• 직전회장 14대 : 김철수(21회)

• 지문위원

15회 이재주 15회 김준휴 16회 황태영 18회 정상도  
 21회 권용재 24회 김상호 25회 조창호

• 회 장 25회 권순호

• 부 회 장 24회 : 김성수 25회 : 한홍길 26회 : 김길환  
 27회 : 조성진 28회 : 안규철 29회 : 김연철  
 30회 : 이우용 31회 : 김주식 32회 : 황창달  
 33회 : 김일만 34회 : 정성운 35회 : 박기철  
 36회 : 박동준

• 감 사 23회 : 윤영훈 31회 : 박영환

• 사무국장 29회 : 조한웅 • 사무차장 39회 : 최원병

• 총무부장 35회 : 김형규 • 체육부장 31회 : 백용준

• 홍보부장 30회 : 이용기 • 대외협력부장 40회 : 김용문

• 이사(기별회장)

24회 : 김성길  
 25회 : 김웅길  
 26회 : 김길환  
 27회 : 조성진  
 28회 : 안규철  
 29회 : 김연철  
 30회 : 서상태  
 31회 : 이광식  
 32회 : 황창달  
 33회 : 조남철  
 34회 : 정성운  
 35회 : 박기철  
 36회 : 박동준  
 37회 : 손현숙  
 38회 : 권성욱  
 39회 : 이찬희  
 40회 : 김용문  
 41회 : 김동현

• (기별총무)

이경욱  
 정극진  
 송성환  
 구본태  
 김장석  
 신동일  
 이용희  
 김민호  
 김영순  
 이영기  
 이동훈  
 이효선  
 장인철  
 박주영  
 황선화  
 강나현  
 성현규  
 박성애

영천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권 순 호

☎ 연락처 사무국장 조한웅

010-3803-6115



## 제17회 영천시장기 축구대회

2017. 10. 22~29 단포강변축구공원



※개회식 오전 9시 - 단포강변체육공원 A구장

전임회장 기세록  
 회 장 윤인지  
 부 회 장 한순식  
 부 회 장 김형락  
 부 회 장 이창희  
 부 회 장 배서현  
 부 회 장 김길호  
 부 회 장 이근식  
 감 사 김덕수  
 감 사 김태우  
 전무이사 김종규  
 총무이사 배철민

운영이사 김용호  
 사무국장 이상호  
 사무차장 서상준  
 사무차장 조희래

여성축구단 감독 김영만  
 여성축구단 코치 한동혁  
 유소년축구단감독 김준협  
 도체감독 이재현  
 30대감독 김현모  
 40대감독 문성기  
 50대감독 김상철

경기위원장 정석무  
 경 기 위 원 이건욱, 이민우, 문성기  
 시설위원장 김창기  
 시 설 위 원 김형석, 김현모, 박종환  
 심판위원장 안사열  
 심 판 위 원 김영만, 정영재, 김형락  
 이근식, 이영효, 손종락  
 손희권, 곽정필

문의 : 전무이사 김종규 010-4538-2237

사무국장 이상호 010-2878-4489

이사

강중클럽 정순용	시청클럽 권영철	하나로클럽 정홍열
금호클럽 김성봉	영도클럽 박영규	한울클럽 양성복
독도클럽 김문구	영우클럽 배서현	회오리클럽 이기탁
돌고래클럽 김덕수	일광클럽 이희동	SM클럽 최우혁
버팔로클럽 전병광	조광클럽 손병석	50클럽 김상철
별빛클럽 이상석	창공클럽 김태원	



영 천 시 축 구 협 회



## 제17회 영천시장기 골프대회

▲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 장 소 : 영천오픈CC

고 문 송재열  
 박영봉  
 최종영  
 권영훈  
 초대 회장 권영성  
 4·5대 회장 전영준  
 6대 회장 김진하  
 7대 회장 성국표  
 8대 회장 김우종  
 9대 회장 허진현  
 직전회장 박봉규

회 장 류시홍  
 실무부회장 김성환  
 부 회 장 강상훈  
 김태욱  
 이상갑  
 이상근  
 이장희  
 이정익  
 정군섭  
 장희석  
 최익구  
 강재윤

감 사 권오훈  
 김현철  
 전무이사 박거원  
 총무이사 정현대  
 재무이사 박찬우  
 경기위원장 서준태  
 경기위원 김준영  
 정승원  
 최성모  
 최재규  
 이 사 김민석  
 김성태

• 접수기간 : 2017. 10. 15 ~ 선착순 마감(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 접수방법 : 정현대(총무이사) 문자로 접수 010-4880-6456  
 • 참가비 입금안내 : 대구은행 505-10-166483-4 영천시 골프협회 류시홍  
 참가비 : 선수 - 50,000원 / 일반인 - 30,000원

이사 김상현 이사 신태룡 이사 장중혁  
 김진현 손종석 정만교  
 박명진 손병호 주인환  
 박영환 이남희 천우식  
 박재홍 이상혁 최중준  
 성용철 우주택 최영호  
 서철민 임채휘

자문위원 권용재  
 엄일진  
 이재홍  
 정진환  
 최문섭  
 최필환  
 최평환  
 황진모

회장 참가클럽

골프협회 회장 류시홍  
 구구회 회장 한세현  
 기영회 회장 김영진  
 KB스타 회장 박희석  
 영상회 회장 송재열  
 융합교류회 회장 박두정  
 선후회 회장 엄일진  
 구공회 회장 김성태  
 금호회 회장 최성호  
 영화회 회장 정극양